

CEGB는 이 세가지 변경사항을 1990년대 중반에 있을 청문회에 제출할 설계에 모두 포함시킬 계획으로 전문기술진이 Torness와 Heysham 2號機 改良가스冷却爐에 대한 작업을 끝내는 내년부터 이 새로운 설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安全性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음세기 초에 運轉開始를 위해 原子力發電會社("Big G")가 1994년까지 2,800MW PWR發電所에 대한 계획동의를 받도록 그 업무가 계승될 것이다. 5年間的 준비작업비용은 1억파운드에 달한다.

日本

政府次元의 原電弘報對策會 發足

日本 科學技術廳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한층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원자력홍보대책연락회」(회장, 平野拓也 원자력국장)의 제1회 회합을 개최했다. 앞으로 관민일체가 된 근본적인 홍보활동의 강화와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등에 조사단 파견 등을 목표로 한다.

동 연락회는 과기청의 관련 실과장, 動燃事業團, 原研, 放醫研의 간부로 구성되며, 각 기관의 전문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홍보대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호의 연락·조정을 충분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에 平野원자력국장이 인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상황은 어렵다. 체르노빌사고가 원인인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의 반대운동은 종래의 패턴과 달리 주부층, 젊은 층에 까지 퍼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는 현황을 피력하고, 「일부에서는 과학적, 학문적 주장을 무시하고 쓸데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일도

있고, 이와 같은 것에는 伊藤과기청장관이 말하였듯이 정정당당히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원자력홍보의 대처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의 보고, 강사를 각지에 파견하는 것 등이 의논되었다.

이 중에서 최근의 反原子力運動에 대해 분석하고 종래의 운동과 비교했을 경우 ① 감정적·정서적 반대, ② 초보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쾌한 論旨, ③ 대중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대중을 대상, ④ 반대운동의 횡적 연결, ⑤ 운동 담당자는 도시에서의 젊은층과 주부층 등이 중심, ⑥ 전국 각지에서의 강연회 개최 등 근본적인 운동 등이 특징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전체로서 PA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락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보고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초에도 일본에서 PA관계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대운동에서 해외에서의 사고 발생지 주변의 상황이 인용되기 때문에 미국TMI, 영국 세라필드, 프랑스, 소련 체르노빌 등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문화서클 등에 강사파견, 일반 시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그를 위한 강사·추진측 연사의 양성, 방사선측정기의 대출 등을 추진하는 외에, 과기청의 원자력모니터의 경험자를 각지의 오피니어링으로서 육성하는 방침 등을 제의했다.

屋內라폰피폭 조사

일본원자력학회 등 49개 단체가 공동개최하는 「제25회 理工學에서의 동위원소연구발표회」가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東京·스키가세키의 국립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발표회 2일째인 7월 5일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笠井篤씨가 「거주환경 속의 라돈농도와 피폭선량에 관한 국내의 연구의 현상」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최근 주거환경 속의 라돈과 딸핵종에 의한 일반대중의 피폭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거주자 중에는 직업피폭한도인 5렘/년을 상회하는 집단도 있으며, 구미각국에서는 라돈에 의한 대중피폭의 연구를 정부의 프로젝트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강연에서 일본의 조사연구 현상에 대해 말한 동씨는 1986년부터 3년계획으로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조사를 소개했다. 「고등학교 이과의 교사택에 수동형의 라돈 모니터를 반년간 두고 측정하는 것으로서 모델은 3천건에 이르고, 일부에서 데이터가 나왔다」고 現狀을 발표하였다.

한편 原研과 건설성·건축研의 공동연구에 대해 언급한 동씨는 「라돈의 거동과 피폭량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건물(지하 1층·지상 베니어 6장 정도의 현장조립가옥)이 '86년에 완성되어 建材로부터의 라돈放出機構, 라돈과 딸핵종의 거동해석 및 피폭선량평가를 계속중」이라고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로서 1층과 지하실의 라돈, 딸핵종의 농도변동과 평형比, 1층과 지하실의 피폭선량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그중에 특히 가옥내의 농도와 연간피폭선량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통 독립가옥의 실내 평균 라돈농도는 0.5피코퀴리/l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에 의한 연간피폭선량이 100밀리렘/년 정도가 된다」는 등의 데이터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일본의 거주환경속의 라돈농도와 피폭선량의 실태 규명에 관해 앞으로 2년 정도면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의 데이터가 정리될 것」이라고 함과 동시에, 지하상가 등 특수한 환경과 라돈농도의 해명, 석고 등 건축재료에 의한 영향의 해명, 피폭선량의 정확한 평가방법, 나아가서는 폐암

발생메카니즘의 해명과 리스크평가 등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연후의 질의에서는 이것을 받아 「新宿지상가에서(라돈농도의) 측정조사를 했지만 생각보다 낮은 수치였다」는 일부의 조사가 소개되었다.

WANO東京센터 내년 3월에 設立總會

아시아의 原子力發電事業者에 의한 “原子力發電 運轉·保守에 관한 情報센터”인 「WANO東京센터」 설립총회가 내년 3월에 열리게 되었다고 電氣事業連合會의 那須會長이 9월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식 활동개시는 내년 4월부터이지만 이제까지 참여한 6개국의 사업자와 동 센터를 네트워크로 묶을 계획이다. 금년 12월에는 동경에 「WANO東京센터 설립 준비 사무국」을 설치하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준비사무국의 要員은 해외사업자로 부터의 파견자 1인을 포함하여 5명이다. 다른 3지역의 WANO센터의 설립도 진행되고 있어 내년 봄에는 WANO 각 센터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WANO(原子力發電事業者國際協會)東京센터는 세계 4개 지역(아시아, 남북아메리카, 西歐, 東歐)에 설치되어 원자력발전사업자에 의한 原子力發電 運轉·保守·管理 데이터·情報交換을 목적으로 하는 情報센터중 하나이다.

지난 6월 東京 설치가 결정되었고 그후 日本의 워킹그룹에서 설치가 검토되었었다. 12월에 설립준비사무국을 설치하고 要員이 확보되면, 내년3월의 발족에는 所長이하 총11명의 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을 연결하는 情報交換 데이터 시스템에는 美國原子力發電運轉協會(INPO)의 原子力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同 센터에는 일본에서 9개 전력회사와 日本原子力發電(株), 電力中央研究所, 해외에서 韓國電力公社, 中國核工業總公司, 인도原子力公社, 파키스탄原子力委員會, 臺灣電力公社가 참가하여 각 사업자의 原子力發電所 運轉狀況, 事故·故障 등의 情報交換이 가능하게 되었다.

原子力發電事業者에 의한 國際情報센터 설립계획은 작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第1回 世界原子力發電事業者 經營者會議에서 합의된 것으로 東京 외에 아틀란타, 파리, 모스크바 등 3개 도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기구

WANO會議 來年5月 모스크바에서 개최

세계원자력안전협회(WANO)의 기구편성을 위한 공식회의가 내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 개최는 지난 7월말 소련공산당 정국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는 회의개최를 주장하는 원자력성과 이에 반대하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의견대립에 당 제일서기 코로바초프 수상이 개입, 중재함으로써 결말이 난것이다.

체르노빌사고 당시의 전력회사들간의 협조 부재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전세계 원자력발전업체들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원칙은 이미 작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합의를 보았었다.

WANO 산하에 있게 될 지역별 정보수집/전달센터가 지금 아틀란타, 파리, 도쿄, 모스크바 등 4군데에 설치중이다. 유럽 전력회사 소식통들은 소련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INPO나 Unipede에 가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럽센터인 WENOC는 금년 말

까지 설치 운영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하고 WANO본부의 위치는 아직 회원사들간에 합의를 보지 못 했으나 런던이나 비엔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美·蘇頂上, IAEA의 役割支援을 表明

소련 모스크바에서 4日間 열린 美·蘇頂上會談에 이어 6月2日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Reagan 미국대통령과 Gorbachev 소련서기장은 原子力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더욱 조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活動을 지원한다고 재확약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美·蘇 두 頂上은 금년이 130 個國 이상이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핵무기규제협정의 하나인 NPT 20주년 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고 全世界의 國家가 NPT에 가입하는 것이 世界の 平和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는 신념을 재확약하였다. 美·蘇 두 頂上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國家는 조속히 이 조약에 동참하거나 또는 國際法律하에서 핵무기 획득과 핵무기 확산방지를 구속하는 커미트먼트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조치는 核軍備減縮에 대한 진전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核전쟁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두 頂上은 IAEA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며, IAEA의 더한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합의한다」고 하였다.

한편 國際協力活動과 관련하여 이 성명은 「美·蘇 두 頂上은 IAEA 후원하에 美國, 소련, 유럽원자력공동체, 일본 등의 전문과학자간에 國際熱核實驗爐(ITER)에 관한 개념설계연구를 착수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값싸고 환경으로의 공해가 없으며 인류의 복지를 위해 무진장한 에너지源인 核融合發電의 開發을 향해 일보 전진한 이번 공동연구의 중요